

# “한암의 공부가 개심의 단계를 넘어섰구나”

## 경허 스님 수행 일화

### ㉔ 인가제자 한암 스님

1898년 경허 스님은 만공 스님을 시봉으로 삼아 부산 범어사에 머물며 영남지방 최초의 선원을 개설했다.

그 다음해인 1899년에는 합천 해인사 조실로 초빙돼 팔만대장경 간행봉사를 증명하는 한편 잠선모임 '수선사'를 창설했다.

이 무렵 경허 스님은 성주 청암사 수도암에서 한명의 제자를 만나게 됐다. 바로 한암 스님이다.

당시 경허 스님은 청암사에서 <금강경>을 강론하고 있었다.

청암사에는 많은 선객들이 정진하고 있었는데 한암 스님도 그 중 하나였다. 경허 스님의 물 흐르듯 막힘없는 강론은 젊은 선객들의 미혹을 일거에 거두었다.

한암 스님은 경허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들으며 깨달음을 얻었다. 24세의 나이였다.

경허 스님의 강의를 끝난 어느 하루 저녁 무렵이었다. 경허 스님이 머무르고 있는 객사로 한암 스님이 찾아왔다.

“스님, 스님께서 소승의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두 눈을 뜨고 있으면서 다시 또 눈을 뜨게 해달라니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내 본성이 소라고 하여 참선을 하며 찾던 중 절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대는 어찌해 소를 타고 앉아서 또 소를 찾는고?”

“하오면 스님”

“일찍이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이렇게 이르셨느니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이 형상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면 그때 여래를 보게 될 것이니라!”

“오! 스님, 이게 대체 몇 백 년 만이옵니까?”

경허 스님은 죽비를 한번 내리쳤다.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암 스님은 1876년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났다. 속명은 중원이었다. 경허 스님이 한암 스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정과 신뢰는 각별한 것이었다. 경허 스님은 한암 스님에게 주는 글을 통해 한암 스님의 성품과 행실이 정직하며 학문 또한 높음을 칭찬했다. 한암 스님 또한 경허 스님에 대한 존경과 사모의 마음이 깊었다.

한암 스님은 어릴 때 영특했으며 한번 생긴 의문에 끝까지 의문을 풀고 마는 집념을 보였다. 22세 때 금강산의 명찰인 장안사에서 수도를 시작한 한암 스님은 보조국사의 <수심결>을 즐겨 읽었다. 한암 스님은 <수심결>의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는 구절을 통해 발심했다.

한암 스님이 도를 구하기 위해 입산한지 3년째 되던 가을이었다. 그 해 가을 경허 스님이 여러 수좌들을 모아 놓고 차를 마시며 담론하던 중 이런 말

경허 스님, 성주 수도암서 ‘금강경’ 강론 24세 한암 스님, 강의 듣고 깨달았으나 그 후 통도사서 화두 ‘일체불위’에 걸려 평안도 우두암서 용맹정진 활연대오

을 했다.

“옛 조사의 <선요>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어떤 것이 진실로 구하고 어떤 것이 진실로 깨닫는 소식인가.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빙 둘러앉은 수좌들 중에서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차를 마시고 앉아있던 한암 스님이 문을 벌럭 벌럭 소리쳤다.

“창문을 열고 앉았으니 기왓장이 앞에 와있습니까.”

스승의 마음과 제자의 마음이 통하고 스승과 제자의 도가 통하는 경지였다.

“이제 한암의 공부다 개심의 단계를 넘어섰구나.”

경허 스님의 한마디는 곧 한암 스님의 깨우침을 정식으로 인가한다는 선언이었다.



그림 · 박구원

이러 경허 스님은 한암 스님과 함께 해인사로 돌아갔다. 해인사에 도착한 한암 스님은 선방에서 큰 미혹과 맞닥뜨린다.

<전등록>을 읽으면서다. 한암 스님은 <전등록> 중 약산과 그의 스승 석두가 남긴 선문답에서 깊은 수련과 같은 무명을 만났다.

스승 석두가 한가로이 앉아있는 약산을 보고 물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일체불위(一切不爲), 이것이 한암 스님이 타파해야 할 새로운 화두가 됐다. 30세가 되던 해 통도사 조실로에 간 한암 스님은 5년을 지냈지만 끝내 화두를 타파하지 못했다. 한번 의

문을 가지면 해결을 보는 스님의 집념은 화두를 타파하지 못하면 죽어 마땅하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선원을 폐쇄한 한암 스님은 마침내 평안남도 두미산에 있는 우두암에 보임처를 마련하고 용맹정진했다. 그해 겨울 한암 스님은 부엌에서 불을 지피다 홀연히 깨달음을 얻었다.

부엌에서 불 지피다 홀연히 눈 밝으니

이로부터 옛길인 연연 따라 분명하네.

만일 누가 달마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뜻을

나에게 묻는다면 바위 밑 샘물소리 젓는 일 없다 하니

활연 대오한 후 묘향산, 금강산 등 암자에 머물던 한암 스님은 서울 봉은사 조실로 머물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 치하에 동족끼리의 아귀다툼을 지켜보던 한암 스님은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한암 스님은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 지언정 삼춘(三春)의 말 잘하는 맹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을 것이다’는 말을 남기고 1925년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 들어가 입적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산문을 나서지 않았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9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물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g

능인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곁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로의 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 문의 : **현대불교 원불잡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승기건강비법 [마·가·목] 신비의 효능"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이 배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개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사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교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공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년이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전화번호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1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아 래 -

**<진주교육원>**

- 입교일시 : 2012년 6월 4일 <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문의전화 : 055) 747 - 8419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6시

**<함안교육원>**

- 입교일시 : 2012년 6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달전사)
- 문의전화 : 055) 587 - 8419
- 수 강 일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상용의식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사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 불음원장 원명 합장**

##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혜택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염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실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